

6. 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은 물고기잡이와 바다가양식에 절실히 필요한 각종 어구를 생산하는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생산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수산부문의 물질기술적도대를 그존히 갖추어야 수산업을 발전시키고 군인들과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유족하게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어구종합공장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그 과업을 인민군대에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관철을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조선인민군 제 534군부대의 일군들과 건설자들, 련관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침으로써 원수님께서 주신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생산건물과 생활건물, 차고, 휴식장 등으로 이루어져있는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이 일떠섬으로써 여러가지 어구들을 생산하여 수산부문에 보내줄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건설된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수산물 생산을 늘이자면 이런 공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건설을 발기하였는데 인민군대에서 소문없이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또



하나 창조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어구종합공장의 형성안을 보면서 주체적건축미학사상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건축물들을 일떠세우라고 지시하였는데 당의 의도에 맞게 공장을 깨끗하고 아담하면서도 문화성있게 잘 지었다고, 어구생산기지라는것이 알리게 정문과 울타리시공도 특색있게 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경도 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경영활동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

서 생산하고있는 그물과 바줄, 양식떼들은 물고기잡이와 바다가양식의 기본생산수단이라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은 수산전선의 병기창과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에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군대와 사회의 수산부문 어디서나 요구하는 그물과 바줄, 양식떼를 비롯한 여러가지 어구들을 많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군수공장 로동계급들이 싸우는 전선에 더 많은 총포탄을 보내주자는 구호를 들고 투쟁한것처럼 공

장종업원들도 수산전선에 더 많은 어구자재를 보내주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공장에서는 전문수산사업소용어구자재들뿐아니라 섬과 해안연선에 주둔하고있는 구분대들의 수산부문에 필요한 덩장, 호망, 자망을 비롯한 어구들도 생산하여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부단히 개선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울뿐아니라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고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제품검사체계를 바로세우는것을 비롯하여 기업관리, 경영관리를

짜고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수산부문들에서 요구하는 어구자재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자면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의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확장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설비를 더 보강하고 생산면적을 늘이며 생산과 경영활동의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는것을 비롯하여 공장의 현대화를 더욱 훌륭히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 5월 27일 수산사업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5월 27일 수산사업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따라 동해 지구에 건설되고있는 5월 27일 수산사업소는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처음으로 건설되는 현대적인 원양수산사업소이다.

총면적이 5만 5,140여㎡에 달하는 5월 27일 수산사업소는 23만 3,700여㎡의 성토를 진행하고 4,000여개의 중량부재, 네뿔부재로 날바다를 막아 부두와 방파제, 호안, 상가대를 건설하며 랭동시설, 가공장, 합숙, 문화회관을 비롯한 공공건물들과 살림집을 일떠세워야 하는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서 방대한 건설대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인 건설자들은 많은 량의 성토와 부두, 방파제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총공사량중에서 제일 어려운 계선을 돌파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5월 27일 수산사업소는 원양선단들을 내보내어 물고기를 잡아오는것과 함께 물고기를 저장, 가공하는 기지인것만큼 그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잘 건설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건설을 다그치자면 방파제를 비롯한 해상공사와 물고기가공장 등 지상공사를 립체적으로 동시에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재보장을 비롯하여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몸소 풀어주시는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5월 27일 수산사업소건설이 끝난 즉시 먼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을수 있도록 수산사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우리 식의 원양어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부터 짜고들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는것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유족하게 하며 군인들의 후방사업을 더욱 개선하여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기때문에 국가방위와 관련한 중대한 전략적문제들을 토의하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5월 27일 수산사업소건설과 관련된 문제를 토의결정

을 뚜렷이 새기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현대적인 원양수산사업소를 건설하자면 애로와 난관도 많을것이라고, 하지만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 돌격대인 인민군대에 건설을 맡기였기때문에 마음이 놓인다고, 우리 당창건 70돐까지 공사를 무조건 훌륭히 완공함으로써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온 세상에 다시 한번 보여주자고 호소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비행장타격 및 복구훈련을 보시였다

전군의 장병들이 서리발총검을 비껴들고 칩찰전쟁연습소동을 미친듯이 벌리며 한없이 귀중한 사회주의조국강산에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고있는 미국과 줄개무리들을 격멸소탕하기 위한 전투훈련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속에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비행장타격 및 복구훈련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훈련을 보시였다.

훈련은 《적》비행장타격에 인입되는 비행대력량할당과 타격순차와 방법, 전투비행사들의 폭격술과 사격술, 각종 항공무장의 성능, 파괴된 비행장복구능력을 실현환경속에서 검열, 확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훈련에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

군 근위 제1항공 및 반항공사단과 제5비행사단관하 추격기, 습격기, 폭격기런대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감시소에서 《적》비행장타격임무수행을 위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의 결심보고를 청취하시고 훈련을 시작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만단의 출격태세를 갖추고있던 우리의 붉은 매들이 《적》비행장상공에 련이어 날아들었다.

《적》비행장의 정류장, 지휘소, 활주로들에 대한 항공기관포와 항공비조종로켓사격에 이어 각종 항공지뢰폭탄투하가 짧은 시간안에 련속적으로 진행되였다.

만리창공에 한몸이 천조각, 만조각

으로 뿌려져도 영생의 녀이 깃들 어머니조국이 있고 죽어서도 안길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품이 있기에 당의 전투명령이라면 구름속 천리, 불길속 만리라도 뚫고나갈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이 만장약된 은빛날개들은 원수님께서 정해주신 목표들을 즉당쳐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투비행사들이 《적》비행장의 요소들을 집중타격하는것을 보시고 저렇게 때리면 적들이 혼쫓이 날것이라고, 잘한다고, 정말 통쾌하다고 못내 만족하시였다.

비행장타격에 이어 파괴된 비행장복구훈련이 진행되였다.

훈련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 정력적인 지도속에서 당

대한 배짱과 무적의 비행술, 폭격술, 사격술을 키워온 용감무쌍한 우리의 붉은 매들의 전투력이 힘있게 과시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훈련이 끝난 다음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싸움준비완성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의 훈련제일주의구호밑에 형식주의, 고정격식화를 배격하고 내용과 형식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비행훈련의 질을 높이는데서 전변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비행부대들에서 강도높은 훈련을 생활화, 습성화, 체질화하도록 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 조선은 지금 나무를 심는다

지금 이 땅 그 어디에서나 봄철나무심기가 한창이다.

모든 산들을 보물산, 황금산으로 만들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빛나는 현실로 펼쳐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호소따라 전체 인민과 군대가 산림을 늘이는 대자연개조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숭고한 조국관, 미래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 식수절을 맞으며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라는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시어 대자연개조전투의 포성을 울리시었다.

그이께서는 로작에서 벌거벗은 산, 훗산을 후대들에게 물려줄수 없다고 하시면서 대원수님들의 구상과 리상을 꽃피워 고난의 행군후과를 가시고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앞으로 10년안에 모든 산들을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키시려는 그이

의 드림없는 결심과 의지가 반영된 로작은 사회주의 국토건설의 빛나는 전성기를 마련할 웅대한 설계도이다.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부이다. 오늘의 산림자원조성과 보호는 자연과의 전쟁으로 되고있다. 그래서 공화국에서는 산림복구전투라고 말한다.

지금 조선반도남쪽에서는 반공화국적대세력의 무분별한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되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어있다. 하지만 적대세력의 그 어떤 불의적인 도발과 침략에도 단호히 대처할 초

강경대비태세를 갖춘 공화국에서는 배포유하게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위한 자연과의 싸움에 진입하였다.

자기 조국의 나무 한 그루, 풀 한포기도 소중히 여기고 자기 품에 안아 더운 피로 키워주는 김정일애국주의가 모두의 가슴마다에 차넘치고 선군으로 마련된 자원의 억센 핵이 있기에 공화국은 끄떡없고 창조와 건설의 불바람소리는 날로 더욱 높아만 가고있다.

지난 세기 미국에 의해 조선전쟁이 일어난 이듬해에 벌써 전승을 확신하시고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를 설계

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신 아버지 수령님 그대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최후의 반미대결전이 벌어지는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머지않아 승리할 때일을 그려보시며 이 땅의 산과 들을 더욱 푸르게 단장시키시었다.

미국은 침략전쟁연습의 핑계로 그 누구를 놀래우려 하지만 조선은 지금 승리한 싸움을 하고있다. 적대세력이 보란듯이 행복의 나무를 심고있다. 머지않아 온 나라에 우거질 푸른 숲들은 절세위인의 조국사랑, 겨레사랑을 길이 전하며 설레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 인민군대의 강군화를 위한 길에서

전군을 최정에강군화하기 위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선군령도의 자욱은 인민군대 녀병사들의 조국수호위훈에도 력력히 새겨져있다.

## 최우수비행사가 되라

지난 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한 항공군부대의 추격기, 폭격기편대들의 비행전투훈련을 지도하시었다.

그날 목표탐색과 습격, 정찰과 기동간 자유공중전투, 특수기교비행, 쌍기, 단거리착륙임무를 수행하

는 훈련에서는 녀비행사들이 훈련도 있었다. 출격의 폭음을 울리며 땅을 박차고 날아올라 훈련속에서 련마한 비행술을 과시한 그들의 훈련을 보신 원수님께서서는 추격기비행사로 전환한지 얼마 안되는데 불리한 일기조건에서

## 명포수운동의 앞장에

신 그이께서는 사격순차와 방법을 정해주시고 명령을 하달하시었다. 그의 명령에 따라 천지를 진감하는 포성과 함께 시벨건 불출기들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 목표지역을 초토화하였다. 목표를 불바다에 잠그는 그들의 훈련을 보신 원수님께서서는 너

단독항로비행과 생소한 비행장에서의 착륙을 남자들이 못지 않게 잘했다고 하시었고 앞으로 더 많이 훈련하여 최우수비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조국의 하늘길에 인생항로를 택한 녀병사들이 순결한 애국심과 결연한 조국수호정신을 더 높이 발양하도록 하시려는 간곡한 당부였다.

## 불의에 명령을 주시고

에 해당목표를 소멸하도록 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었다. 녀병사포병들은 신속히 포를 진지에 기동전개하고 순식간에 목표를 명중소멸하였다. 그 광경을 보신 원수님께서서는 불의에 훈련계획에 없던 목표를 지적이고 소멸하도록 화력임무를 주었는데 임무

를 잘 수행했다고 치하하시었다. 군인들에게는 오늘의 훈련이 데일의 싸움으로 이어져있고 언제 어떤 정황이 생겨도 즉시에 전투에 진입하여 적을 소멸할수 있게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이께서는 불의에 명령을 내리시어 녀병사들의 실전능력을 알아 보신것이었다.

본사기자 리설

# 철창속의 진달래

김윤식

0.75평 무덤같은 독감방한점 빛도 없는 그안에서 꽃은 피어나고있었다. 뼈를 얼추는 흑한, 숨막히는 무더위속에서도 향기는 그윽히 온넛을 적시고있었으니

못 잇을 고향의 노을빛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잎마다 물들어 어려오는 의지의 꽃!

아, 태양만을 따르며 봄을 먼저 알리는 진달래처럼 통일이 새봄을 그려 순결하게, 억세게, 아름답게 한생을 빛내인 그대 리인모!

한번 품은 절개 굽히지 말아야 함을 참된 삶의 자욱으로 보여준 그대 철창속에서 피우던 진달래 신념의 꽃으로 피우고 가꾸며 그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어라!

# 조국이 배워준 언어가 아니였다

김태룡

《전향하라》 《전향하라》 하루에도 수십, 수백번... 살점을 뜯어내며 뼈를 토막치며 교형리들은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

거니 하지만 그 1초와 결단코 악형의 34년을 맞바꾼 리인모

끈질긴 전향의 강요와 회유앞에 피졌은 침묵으로 맞서싸운 신념의 강자 리인모 그는 몰랐다 더러운 그 말을 《전향》— 그것은 조국이 배워준 언어가 아니였다

# 신념에 살아 오늘도 살아

-리인모선생의 반신상앞에서-

리송일

한생에 품었던 뜻 통일이어서 삶을 바쳐 그려본 통일이어서 오늘도 여기 통일거리에 있는가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동지》

죽어도 배신자로는 살수 없어 변절의 길을 택하지 않은 신념의 화신 신념에 살아 조국의 품에 안기고 신념에 살아 오늘도 살아있나니

금방 철창문을 나선듯 피졌은 수인복 철쇄에 묶인 두손 억세게 틀어진 모습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34년 그 시련의 모진 세월을 불굴의 의지로 이겨낸 투사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원주와 맞서 싸우던 그날의 그 모습으로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리인모선생은 곳곳이 서있어라 후대들앞에 신념의 교단우에

시종일관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지향과 성의있는 노력에 한사코 도전하여 미국과 남조선의 반민족, 반평화, 반통일세력과 그에 편승한 추종세력은 조선반도일대에서 모험적인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있다. 어떻게 하나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굴복시키고 조선반도를 타고있으며 세계제패의 꿈을 이루자는 흉계와 야망의 발로다.

적대세력의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총결산하려는것이 공화국의 항전의지다.

강자는 빈말을 모른다. 강자의 대답은 곧 50년전에 있는 미국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 나포사건 당시에 활동한 한 언론인의 취재후기를 통해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세계를 죽가마 꿰듯 하게 한 그날 현지로는 많은 취재진이 모여들었다. 기가 질릴 정람배들이 줄레줄레 배에서 내리고있을 때 사진기자들이 저마끔 사진기를 꺼내들었다. 그 찰나였다. 어깨성을 이룬 기자들속에서 별안간

《이건 뭐야?》 하는 웨침 소리가 추위에 얼어붙은 공기를 깨며 울렸다. 그것도 한순간이었다. 그 기자는 손사래를 치며 다시금 소리질렀다. 《도적고양이처럼 남의 집들안에 기여들었다가 덜미를 잡혀 포로가 된 주제에 손도 제껴 쳐들지 않고 이 땅을 밟아? 두손을 높이 쳐들어라, 더 높이!》 한말을 랑- 구르며 그는 목청을 돋구었고 걸음을 내짚었다.

# 강자의 불호령

다. 하나같이 물에 빠진 쥐의 물골과 흡사한, 간신히 손을 허리춤높이에 들고 사시나무 떨듯 하고 있었다.

목소리의 임자는 다시금 앙칼지게 소리를 쳤다. 《우리가 찍는 사진은 너희들의 우거지상이나 보자는게 아니다. 포로가 된 그 꼴을 세상사람들이 보게 하는거다.》

이어 그는 《조선말도 알아듣지 못하는군.》 하고는 다시 한말을 랑- 구르며 《핸드 업!》 하고 웨쳤다. 그 한마디에 포로들은 와들 놀라며 저마끔 두손을 머리로 버쩍 쳐

들고 걸음을 내짚었다. 강자의 배심있는 연출이었고 초췌한 종이범의 고분스러운 연기였다. 때를 놓칠세라 사진기들이 서는 샤라소리가 연방 울리었다. 이렇게 되어 《푸에블로》 호 승무원들이 손을 들고있는 사진이 세상에 알려지고 강자의 력사기록으로 후세에 남게 되었다.

바다의 《숨은 제왕》 리기념관에 있는 로획무기전시장을 찾았을 때였다.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사람들이 전시된 《푸에블로》 호와 사진자료들을 보면서 조선에서 미국이 걸음마다 당한 수치와 치욕의 교훈을 망각하고 기어코 전쟁의 불집을 터뜨린다면 반드시 중국적멸망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충고와 복수심을 터놓고 있었다. 한 군인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지금 반공화국침략전선연습을 하고있는데 끝내 침략의 선봉질을 한다면 백두산총대는 추호의 자비와 타협이 없는 무자비한 타격으로 미국에 진차전쟁맛을 보여줄것이라고 자신감을 펴 력하고있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으시고 근위부대관을 돌아보시면서 미세와 반드시 치르게 될 앞으로의 싸움에서 미세의 성조기를 걸레짜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지를 자신들의 힘과 의지로 가다듬는 그들의 모습에서 최후승리를 위한 반미대결전에 산악같이 일떠선 강자들의 존엄과 기상을 보았다.

본사기자 리설



나포된 미국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 선원들

# 세 상 에 서 제 일 좋 은 인 민

일찌기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여기시고 인민을 위하여 애국의 한생을 바치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이라고, 이런 훌륭한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까울것이 없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도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이라고, 우리 인민처럼 훌륭한 인민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인민복을 누리고있다고, 우리 인민을 말할 때에는 《위대한》이라는 말을 붙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과 위업을 이으시여 선군조선의 찬란한 번영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 만년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아들여온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삶을 안겨주실 결심과 용지를 피력하시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그 도록 높이 내세워주신 우리 인민!

공화국의 인민들은 과연 어떤 인민이기에 절세위인들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 위대한 인민이라고 그러도 정당하게 부르고 값높이 내세워주신것인가.

이 나라의 인민들은 자기 령도자를 진심으로 높이 받들고 그 애국의 령도를 한마음한 뜻으로 받들어나가는 충직한 인민이다.

지난 2011년 말 세계는 조선에서 펼쳐진 놀랍고도 감동깊은 현실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구차가 지나갈 평양시내의 도로들에는 야속하게도 눈이 계속 내리고있었다. 그 눈내리는 도로들에 추운 겨울날 자기들이 입은 솜옷들을 벗어 씌우고 옷을 펼쳐들고있던 수많은 남녀로소들, 장군님 한평생 인민을 위해 험한 눈보라길을 헤쳐가시었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는 제발 눈길을 걷지 않으시게 하겠다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

지만 저저마다 옷을 벗어 펼쳐 든것이다.

그 눈물겨운 광경을 목격한 한 해외동포연론인은 이렇게 글을 썼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을 경험하며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 세상천지 그 어디에 북녘 동포들이 그리도 따르고 존경하던 령도자와 함께 나눈 이런 참된 사랑의 이야기가 또 있었을가 묻게 된다. 그 어떤 글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상상을 초월하는, 눈물없는 말할 수 없고 쓸수 없는 북녘동포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대서사시 같은 력사가 수천수만년 인류 력사에 언제 또 있었을가 궁금해진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자기 령도자를 한평생 이렇게 받들어왔고 지금도 높이 받들어모시고있다.

어째서?

그것은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끝없는 매혹의 감정때문이다.

령도자를 받드는것은 억지로 될수 없고 일시적인 충동으로 되는것도 아니다. 매혹과 흥미의 감정이 없으면 인민의 이런 깨끗하고 진실하고 눈물겨운 마음과 노력이 생겨날수 없다.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시고 인민의 행복을 쫓아주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른 새벽, 깊은 밤에도 현지도의 길에 계신 위대한 대원수들이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나라를 찾아주시고 인민의 새 세상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가장 값높은 삶과 행복을 안겨주시는 절세위인들께 인민이 매혹되고 따르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령도자를 따르는것은 공화국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고 신념이다.

령도자가 찾아가면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할것없이 달려와 품에 안기고 눈물을 흘리며 목청껏 만세를 부르는 인민, 누구나 령도자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싶어하는 인민, 령도자에게 기쁨을 드리려는것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영광으로 여기는 인민, 령도자

의 영생을 축원하여 위인칭송의 꽃축전을 해마다 펼쳐놓는 인민...

세상에 이런 인민이 또 있을까.

눈을 들어 세상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인민들의 불만과 항의의 웨침이 들려온다. 《임금을 인상하라!》, 《해고자를 복직시키라!》, 《무능한 집권자는 물러나라!》, 《선거결과를 인정할수 없다!》, 《이런 세상에 살기 싫다!》...

어느 나라의 국가수반이나 민심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사회의 정치적안정을 꾀한다. 그러나 인민의 불만과 《정부》에 대한 항의행동들이 없는 나라가 없고 그래서 세계는 씨글벅적하다.

인종차별이 극심하고 부자들만을 위한 정치가 실시되는 미국에서도 반정부시위가 그칠사이없이 벌어지고 오바마의 지지도는 20%계선까지 곤두박질했다. 북과 한지맥으로 잇닿아있는 남조선사회에서는 령대로 《대통령》 지지도가 낮아 《30%짜리 대통령》, 《반쪽대통령》이라는 말이 나돌았고 악정이 휩쓰는 지금은 집권자를 비난하는 인민들의 원성에 찬 베라가 도처에서 매일같이 뿌러지고있는 형편이다.

조선에서처럼 모두가 자기 령도자를 중심으로 받드는 인민, 령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정, 도덕의리로 굳게 뭉쳐있는 일심단결의 사회는 고급동서에도 없고 앞으로 더는 없을것이다.

공화국에서 인민이 령도자를 진심으로 받들고 따르니 얼마나 좋은가.

사회가 정치적으로 최대로 안정되어있고 선거는 인민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는 모두의 기쁨의 명절로 되고있으며 령도자의 원대한 뜻과 구상이 그대로 실천되어 나라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발전하고있다. 온 나라가 령도자를 친어버이로 모신 하나의 대가정이 되어 사회에 넘치고 또 넘치는것이 사랑과 정이고 행복의 웃음소리이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자주와 존엄에 사는 위대한 인민이다. 인간의 행복은 결코 돈에 있

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향락만을 추구하는 동물이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이고 존엄에 사는 사람이기때문이다. 인간에게서 존엄을 빼놓으면 죽은 목숨이나 같다.

인민들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인민은 자주에 살고 인간존엄에 사는 인민들이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란무하는 이 행성에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인민들이 돈의 노예로 살고 침략자들과 가진자들에게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마구 짓밟히고있다. 세상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흘러와서 그런 운명을 숙명처럼 간주하며 돈에 쫓기우고 침략군의 군화발에 짓밟히며 인간존엄을 우롱당하며 사는 인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이 자주에 살고 존엄에 사는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귀중한 목숨까지 서슴없이 바쳐간다.

그 자주와 존엄이 저절로 생겨난것이 아니다. 자주정치와 이민위천의 리념이 구현된 공화국의 세상이 인민들을 그처럼 자주성이 강하고 존엄에 사는 인민으로 만들었다.

돌이켜보면 20세기초 조선을 다녀간 유럽의 한 작가는 지계를 무겁게 지고 구슬픈 얼굴로 숨은 서있는 소년을 형상한 조각품을 만들어 책상위에 놓고 그것을 조선사람의 표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여왔다. 그때로부터 수십년 세월이 흘러간 20세기중엽 또다시 조선을 다녀간 그 작가는 세상에서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를 타상하고 재더미무에서 제힘으로 아름다운 평양을 건설해놓은 조선인민의 투쟁에 격동을 금치 못하며 천리마동상을 우러러 이것이 바로 존엄높은 조선인민의 새 모습이라고 격정을 터놓았다고 한다.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이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라는 구호를 좋아하고 노래도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즐겨부르고있다.

남들같으면 열백번 동요하고 주저앉았을 그 모진 고난과 역경속에서도 봉쇄와 압박에 굴

복하여 제국주의의 노예로 사는 길이 아니라 힘겹고 어려워도 웃으며 령도자의 뜻을 받들어 거름더미를 나르고 제힘으로 발전소들을 일떠세우며 강성국가건설의 포성을 높이 울린 강직하고 존엄높은 인민이다. 이런 인민의 마음은 돈으로도, 퇴폐적인 서방문화로도 유혹할수 없고 침략의 대포소리로도 짓누를수 없다. 침략위협과 압박이 거세지면 질수록 더 강하게 맞서나가고 백두의 기상으로 자력갱생의 마치소리를 더 높이 울려가는 이런 훌륭한 인민을 과연 누가 당해낼수 있으랴.

공화국이 자주와 존엄의 세상이라면 남조선은 이와는 너무도 판판 다른 사대와 예측, 굴종의 사회이다. 이번에 미국대사 한명이 분노한 민심의 항거에 의해 얼굴이 조금 붉혔다고 해서 집권자로부터 《국회》와 정당, 행정부, 경찰과 사법계, 보수단체들이 총뿔쳐나서 보기에조차 참한 비굴한 《사과》놀음을 벌리고 지어 《석고대퇴단식》이라는 망측한것까지 한것을 두고 온 세상이 조롱하고 지어 미국인들까지 눈살을 찌푸렸다.

미국에 예측되고 정치가 친미굴종이니 사회에도 대미굴종의식이 팍 차있는것이 남조선의 비참한 실태이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자신보다 사회와 집단, 나라와 인민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며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민이기도 하다.

어느 나라에서나 애국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이 나라 인민의 애국심에는 견주지 못한다. 공화국인민들의 가슴마다에는 김정일애국주의가 소중히 자리 잡고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어떤 애국주의인가.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의 정화이다.

인민의 이런 뜨거운 애국의 마음에 받들려 것처럼 강하고 기세차게 전진하는 공화국이다.

돈과 권력이 모든것을 지배

하는 자본주의세계에서는 너 아니면 나,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고 지어 돈에 환장하여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들이 매일같이 반복되고있지만 공화국의 인민들은 사회주의 대가정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사랑의 전설들을 수놓아가고 있다.

한 로동자처녀의 얼굴을 되찾아주기 위해 8년간 100여차례의 성형수술을 한 녀의사에 대한 이야기, 근 20년간 55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부부에 대한 이야기, 제자를 등에 업고 다닌 교원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말은 환자라 하여 안해의 눈에 수술 칼을 댄 안과 의사에 대한 이야기...

공화국에서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끝없이 전해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를 진심으로 받들고 끝까지 믿고 따르며 자주와 존엄에 살고 아름다운 인간사랑의 이야기들을 수놓아가는 공화국의 인민들.

세상에는 이런 인민이 더는 없다. 이처럼 좋고 훌륭한 인민은 동서남북 그 어디를 봐도 오직 조선인민뿐이다.

지금 적대세력들은 공화국과 관련하여 《변화》니, 《급변사태가능성》이니, 《붕괴》니 하는 별의별 요설들을 다 내뿜고있다.

이것은 이 나라 인민들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고 꿰치는 무식쟁이들의 잡꼬대이다.

실사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비일비재하고 충분히 가능하다 해도 여기 조선에서만은 절대로 령도자와 인민을 갈라놓을수 없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삶의 보금자리, 고마운 제도 와 인민을 분리시킬수 없다.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절세의 위인이 계시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이 있어 공화국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반미최후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사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본사기자 김준경



자기 령도자를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는 공화국인민들

# 하늘을 나는 조선의 배우들

## ◆ 제39차 몽떼카를로국제교예축전에서 금상 쟁취 ◆

리아, 에스빠냐를 비롯한 16개 나라의 우수한 교예 배우들이 참가하였다. 여기에서 체력교예 《쌍그네비행》과 《중심조형》에 출연한 국립교예단의 교예배우들이 평시에 런던의 예술적기량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금상을 쟁취하였다. 《쌍그네비행》에 출연한 교예배우들은 공중에서 난도가 높은 기술동작들과 뛰어난 재주를 연속 펼쳐보임으로써 관람자들의 심금을 완전히 틀어잡았다. 특히 공훈배우 김명진 배우가 수행한 14m의 먼 거리를 비행하면서 앞으로 네바퀴돌아잡기는 지금까지 세계의 그 누구도 수행하지 못한 기술동작으로서 관람자들은 물론 국제심사원들과 축전참가자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박송희, 신철진배우들

이 출연한 《중심조형》 역시 마찬가지이다. 배우들이 입증심을 잡은 상태에서 지상과 공중에서 다양하고 독특한 기교를 보여줄 때마다 관람석에서는 열렬한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축전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선의 공중교예는 어느 나라도 따를수 없다. 《쌍그네비행》은 기술과 형상, 의상, 조명에 이르기까지 흠잡을데 없이 완전무결하다고 하면서 축전에 이런 훌륭한 작품을 보내준 귀국정부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축전심사원인 미국세계교예회사 사장은 조선의 공중교예가 발전하였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심사원으로서는 조선의 공중교예작품을 직접 보게 된것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쌍그네비행》에서 배우들이 날아다니는 동작 하나하나가

조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중심조형》은 조선인민의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세계를 우아하면서도 아슬아슬한 동작으로 잘 펼쳐보였다. 나는 조선배우들의 공연에 완전히 반하였다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국제교예축전에서 금상

쟁취, 이것은 단순한 금상이 아니라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도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공화국의 역센기상과 용감하고 씩씩한 조선인민의 모습, 고상한 정신세계에 대한 응당한 평가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흔히 교예를 가리켜 재주의 예술이라고 한다. 교예는 사람들에게 강한 의지와 담력, 생활의 광만과 희열을 안겨주는 것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일찍부터

국가적인 관심과 혜택속에 교예가 발전하였는데 특히 공중교예종목은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지난 1월 중순 모나코에서 진행된 제39차 몽떼카를로국제교예축전에서 조선의 교예배우들이 또다

시 금상을 받은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역사가 오래 수준이 높은 교예축전으로 알려진 이번 몽떼카를로국제교예축전에는 조선과 도이칠란드, 로씨야, 스위스, 중국, 이탈리아



# 수기 아버지 에 대한 추억 (2)

푸름푸름 웃고추 다져서 열무김치 담그는 날은 꽤약별도 정이 든다는데 자매가 가득 푸성귀 버물다 만들고

마십시오.》라고 하던 락원의 10명당원들도 찾아가시고 전쟁의 상처로 몸부림치는 아픈 가슴들도 뜨겁게 어루만져주시었다. 바로 그 나날 어버이수령님께서 뜻밖에도 우리 아버지를 알아보시었다.

어딘가 낮이 익어보이는 사랑! 아버지의 심장은 후두둑 놀뛰었다. 중앙에 있을 때 한 두번 큰 회의에 참가한적이 있어도 별로 눈에 띄이게 토론한번 해본적 없는 아버지를 우리 수령님께서 알아보신것이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아버지에 대하여 상세히 물으시고 민음의 말씀도 하시고 차에 오르시었다고 한다.

은 어른들이 욱도 안하던 시절이다. 아파트에서 텔레비존도 우리 집에 제일먼저 생겼다. 동네아이들이 구름처럼 몰려왔는데 누나가 질색하다 아버지에게 여러번 욱을 먹었다. 아버지는 방안에 가득차고 현판에 가득차고 복도에까지 가득찬 아이들을 앉히고 자기는 서재에서 원탁을 꺼내다 그우에 틀고앉아 텔레비존을 보았다. 그때 우리 집엔 작은 발풍금도 있고 너동생이 뻑뻑거리던 바이올린도 있었으니가 초보적인 생활조건은 훨씬 지난 수준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느 뒤구석엔 토굴집이 있을 때였지만 아버지는 놀라운 생활조건을 보장받고있었다. 아버지가 있던 창작실에는 박산운선생도 있었고 남조선에서 이러저러한 곡절을 거쳐 북으로 온 작가, 시인들이 거의 전부들이 루고있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대우는 높았다. 말하자면 어버이수령님께서 아버지같은 사람들의 진짜보호자가 되시여 보살펴주신것이다.

이것이 진정 무엇일가 수억만개 세포로 촘촘히 이루어진 우리의 살이, 우리들의 피가 순간도 멈춤없이 쉬임없이 부르는 분렬의 아픈 숨소리

저마말에 하나가득 제비들 우짖던 날 열무김치 와작와작 풋바심 보리밥을 그리도 맛나게 먹던 어깨 등실한 아들이 그리워 어머니는 소금항아리에 손을 넣은채 말없이 오솔길을 바라보고 있다

숨처럼 부드러운 암록강바람이 교요히 아버지를 감싸안고 있었다. 하늘에서 수천만개의 별들이 초롱불을 켜고 내려온듯 강물우엔 작은 별들이 반짝이고있었다. 고즈넉한 그 저녁, 아버지는 울고있었다.

그때 한방은 생활방이었는데 서재엔 아파트적으로 우리 집에만 있는 용수철식 안락의자가 다섯개 있었다. 가운데 원탁을 빙 둘러 안락의자를 놓고 벽은 책으로 꽉 채우고 사는것이 아버지의 리상이었다. 그 귀물같은 의자를 4층 8호집에 두개나 거저 주었다. 세대주가 허리를 다쳤기때문이였다. 후 곤란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머니를 찾아왔고 찾아오지 않아도 낚은 치마를 입고다니는 동네사람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치마라도 한감 사주라고 일러주곤 하였다.

가운데 원탁을 빙 둘러 안락의자를 놓고 벽은 책으로 꽉 채우고 사는것이 아버지의 리상이었다. 그 귀물같은 의자를 4층 8호집에 두개나 거저 주었다. 세대주가 허리를 다쳤기때문이였다. 후 곤란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머니를 찾아왔고 찾아오지 않아도 낚은 치마를 입고다니는 동네사람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치마라도 한감 사주라고 일러주곤 하였다.

거기서 아버지는 민족고전 문학과 《두보시선》을 비롯한 중국고전문학번역도 하였고 많은 시도 썼다. 작가동맹 맹적이 해결된것은 물론이다. 높은 대우를 받는데다 수많은 번역, 창작물들의 원고료까지 받으니까 정말 살림이 넉넉하였다. 아버지는 귀여운 자식들의 손목을 하나씩 나누어잡고 어머니와 함께 극장에도 가고 영화관에도 갔다. 식당에도 자주 갔다. 그러다다니 신의주에 있을 때처럼 어디서 모여오는

지 양말대님을 맨 령감쟁이들이 다시 우리 집 안방을 차지했다. 열심히 보풀이 난 한자책을 뒤지며 필사를 하다가 한잔 마시고나선 이상한 소리를 뽑아대곤 하였는데 후에 알고보니 판소리였다. 나는 그제 너무 지겨워서 아버지가 그렇게 배우라는 한문을 끝내 안배웠다. 《필사료》, 《품물놀이값》, 《접대비용》 그 모든것이 우리 집에서 나간건 틀림없다. 아버지에게는 그 이상의 넉넉함이 필요없었던것이다. 그때 아버지는 행복했는가? 난 아니더라고 여기에 감히 써넣는다.

어느 일요일에 어머니가 신의주에서부터 끌고온 고리짜를 해쳤는데 거기에는 우리 집식구들에겐 전혀 필요없는 새옷들이 정성스레 쌓여있었다. 이게 무엇인가고 물으니 아버지가 천만뜻밖에도 남조선에 있는 네 형, 네 누나들의 옷이라고 했다. 당황한 순간이었다. 전혀 몰랐던 일에 부닥친 나는 한동안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때마침 그때 라디오에선 남조선의 악질경찰이 나오는 아동방송극 《이들이와 삼들이》가 흘러나오고있었다. 《형, 누나들은 거기서 뭘하나요?》

퍼올려도 퍼올려도 끝없는 샘물처럼 사십년을 한대중으로 솟아오르는 그 짜고도 뜨거운 눈물이 눈시울에 고여서 부질없이 넘어갈세라 어머니는 소스라쳐 머리를 흔들시고 어느새 조용한 눈길로 북녜하늘을 바라보고계신다

수령님을 생각하면 흐렸던 날씨도 밝아옴니다 차갑던 누리도 더워집니다

그때 다 그렇게 살 때였다. 베란다창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집집마다 동태두름이 매달려있었고 채과상점에선 과일이 썩을가봐 걱정이고 식료상점에선 사랑이 녹아내려서 야단이였다. 나같이 세찬 아이들이 아파트밑 들메나무에 가득 걸여말리우는 동태 두어 두름쯤 똑 떼가서 구워먹는것

안락까운 삶을 움켜쥐고 끊어던져 던져버리자고 지난날을 매몰스레 떠밀어 보았건만 바람처럼 밀물처럼 호곡처럼 속삭임처럼 엄한 부모님의 목소리처럼 끊임없이 밀려오고 밀려오는 그리움

이것이 진정 무엇일가 수억만개 세포로 촘촘히 이루어진 우리의 살이, 우리들의 피가 순간도 멈춤없이 쉬임없이 부르는 분렬의 아픈 숨소리

이것이 진정 무엇일가?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내가 한 열서너살 나던 때의

《가없는 아버지, 그때 아버지의 가슴이 얼마나 터졌겠습니까, 지금 또 한번 아버지에게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이 못난 동생에게 아버지를 빼앗기고 어언 70고개를 넘어설 형님, 누나들, 꿈에도 볼려보고 싶은 종식, 종식, 종국형님들과 경애, 경숙누님들에게도 용서를 빕니다.》 김종설(김상훈의 맏아들) 2015년 2월 6일

아버지가 쓴 《열무김치》라는 시다. 퍼올려도 퍼올려도 끝없이 솟구치는 샘물처럼 때없이 눈물이 솟아도 남이 불세라 소스라쳐 놀라며 말없이 북녜하늘을 바라보실것만 같은 어머니... 아버지는 이 어머니를 계급이라는 말로 거부할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작가라는 의태를 포기하고 옛날 지주집장자로 키우려고 양아버지가 희초리를 들고 배워준 구한문을 민족을 위하여 유리하게 쓰리라 굳게 다짐하였던것이다.

우리 집은 인차 평양으로 올라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까지 배려주었다. 그들속에는 그때부터 수십년간을 두고 아버지와 편지교환을 한 《배추아저씨》들도 있었고 우리 녀자들이 좋아하는 《녀성은 꽃이라네》라는 가사를 써서 유명한 시인이 된 후에도 자기는 상훈선생의 제자라고 해마다 제사날을 잊지 않고 찾아주는 어제날의 로동청년 송남선생도 있었다.

행복!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살아갈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적부? 그런 의미라면 아버지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였다. 우리가 평양으로 올라왔을 때 국가에서 처음으로 준 집은 보통강구역에 있는 5층아파트 3층 4호였다. 수세식시설이 갖추어져있는 두칸짜리 집, 부엌도

이것이 진정 무엇일가 수억만개 세포로 촘촘히 이루어진 우리의 살이, 우리들의 피가 순간도 멈춤없이 쉬임없이 부르는 분렬의 아픈 숨소리

이것이 진정 무엇일가?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내가 한 열서너살 나던 때의

이것이 진정 무엇일가 수억만개 세포로 촘촘히 이루어진 우리의 살이, 우리들의 피가 순간도 멈춤없이 쉬임없이 부르는 분렬의 아픈 숨소리

이것이 진정 무엇일가?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내가 한 열서너살 나던 때의

《수령님, 복구건설은 넘려

행복!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살아갈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적부? 그런 의미라면 아버지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였다. 우리가 평양으로 올라왔을 때 국가에서 처음으로 준 집은 보통강구역에 있는 5층아파트 3층 4호였다. 수세식시설이 갖추어져있는 두칸짜리 집, 부엌도

행복!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살아갈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적부? 그런 의미라면 아버지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였다. 우리가 평양으로 올라왔을 때 국가에서 처음으로 준 집은 보통강구역에 있는 5층아파트 3층 4호였다. 수세식시설이 갖추어져있는 두칸짜리 집, 부엌도

행복!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살아갈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적부? 그런 의미라면 아버지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였다. 우리가 평양으로 올라왔을 때 국가에서 처음으로 준 집은 보통강구역에 있는 5층아파트 3층 4호였다. 수세식시설이 갖추어져있는 두칸짜리 집, 부엌도

행복!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살아갈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적부? 그런 의미라면 아버지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였다. 우리가 평양으로 올라왔을 때 국가에서 처음으로 준 집은 보통강구역에 있는 5층아파트 3층 4호였다. 수세식시설이 갖추어져있는 두칸짜리 집, 부엌도

행복!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살아갈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적부? 그런 의미라면 아버지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였다. 우리가 평양으로 올라왔을 때 국가에서 처음으로 준 집은 보통강구역에 있는 5층아파트 3층 4호였다. 수세식시설이 갖추어져있는 두칸짜리 집, 부엌도

행복!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살아갈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적부? 그런 의미라면 아버지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였다. 우리가 평양으로 올라왔을 때 국가에서 처음으로 준 집은 보통강구역에 있는 5층아파트 3층 4호였다. 수세식시설이 갖추어져있는 두칸짜리 집, 부엌도



김상훈 선생의 가족 사진 (1985년)

# 《종북》소동, 무엇이 문제인가

남조선보수당국이 집권위가 심화될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늘 썰먹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종북》소동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남조선주재 미국대사징벌사건을 계기로 《배후세력》이니, 《종북세력》의 소행》이니 하고 공화국과

억지로 련결시키면서 《종북》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남조선에서 어지럽게 불어치고 있는 《종북》광풍은 남조선보수당국이 저들의 동족대결정책을 정당화하고 날로 위태로워지는 처지를 모면해 보려는데 그 추악한 목적이 있다.

## 극도의 반복적대의식의 산물

《종북》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북을 추종한다는 것이다. 《종북》이라는 말 자체에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와 부정이 짙게 배여 있다. 통일을 하자면 북과 남이 뜻과 마음을 하나로 합쳐나가야 한다. 통일은 바로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워 차이점은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나라의 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온 민족의 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다. 동족이 사는 북을 덮어놓고 적대시하게 되면 초래될 것은 불신과 갈등의 확대이고 언제 가도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적대시대결은 충돌과 전쟁밖에 초래할 것이 없다.

그래서 지난 시기 북과 남은 대화를 통하여 차이점은 뒤로 미루고 공통점과 합의점을 찾아 공동보도문도 만들고 선언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역사적인 7.4공동성명도 바로 그렇게 채택되었고 6.15공동선언, 10.4선언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민족이 힘을 합쳐 통일로 나아가려는 숭고한 정신에서 마련된 민족통일리정이다.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배척해서는 북과 남 사이에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다. 70년의 오랜 세월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사상과 제도가 존재해온 조선반도의 현실에서 민족이 통일로 가자면 뜻과 마음을 합쳐나가야 한다. 북은 지금껏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주장하여 왔다. 공화국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가 가장 우월하지만 남조선에 그것을 강요하지 않고 강요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등 시종일관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주장

하고 해서 《종북》으로 몰아탄압한다면 《종북》이 아닌 사람은 다 북과 전쟁을 해야 한다고 웨쳐야 할 것이다. 북의 옳은 주장을 남에서도 웨칠 수 있고 남에서 올라온 옳은 웨침을 북이 환영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주장들이 민족의 화합과 통일, 평화에 이바지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북의 주장과 조금만 비슷한 소리를 해도 《종북》으로 몰아대는 것은 통일의 리치도 모르는 무지막직한 강행위이고 북을 쳐앉아야 할 원주목과 화해하여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나가자고 한다면 애당초 《종북》이라는 개념도 성립될 수 없고 그 황당하고 미친 《종북》소동광풍도 일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북을 대하고 통일을 대하는 남측당국의 비뚤어진 관점과 자세가 문제이다.

## 《종북》소동의 목적은

그래서 지난 시기 북과 남은 대화를 통하여 차이점은 뒤로 미루고 공통점과 합의점을 찾아 공동보도문도 만들고 선언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역사적인 7.4공동성명도 바로 그렇게 채택되었고 6.15공동선언, 10.4선언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민족이 힘을 합쳐 통일로 나아가려는 숭고한 정신에서 마련된 민족통일리정이다.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배척해서는 북과 남 사이에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다. 70년의 오랜 세월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사상과 제도가 존재해온 조선반도의 현실에서 민족이 통일로 가자면 뜻과 마음을 합쳐나가야 한다. 북은 지금껏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주장하여 왔다. 공화국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가 가장 우월하지만 남조선에 그것을 강요하지 않고 강요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등 시종일관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주장

사회란 사람들이 모인 사회 집단이다.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주의주장과 생각이 모두 똑같을 수 없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북세력》 탄압소동은 남조선이야말로 개인의 사소한 표현의 자유도,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히는 파쇼악독사회, 인권폐허지대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의 《종북》소동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모든 것을 짓누르고 동족대결풍토를 조성하기 위한데 범최적의 목적이 있다. 남조선당국은 이미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활동해왔던 통합진보당을 《종북》으로 몰아 강제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 원에게는 최고량을 채웠다. 또한 《민족의 정기를 바로세우고 통일을 추구한다.》라는 리념에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서서 정의의 목소리를 전해온 진보적인 인터넷신문

《자주민보》도 《종북》의 모자를 씌워 강제해산했다. 남조선의 진보민주세력, 통일애국세력이 당국의 《종북》광란으로 갖은 박해와 탄압을 당하고 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남조선당국은 《반국가, 리적단체도 해산할 수 있는 법적근거마련》이니 뉘니 하며 반민족, 반통일파쇼악법인 《보안법》 개악음직도 날로 포퓰화하고 있다. 《종북》마수가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 회세의 《종북》광란으로 남조선에서는 보수당국의 악정에 반기를 든 야당까지도 《종북속주》로 몰리우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남조선에서 진보민주세력, 6.15지지세력을 북과 억지로 련결시켜서라도 《종북》으로 몰아 말살하고 련북통일기운을 막으며 남조선사회전반에 살벌한 동족대결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한 것이 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벌리는 《종북》소동은 또한 지리멸렬되어 가는 극우보수세력의 집결을 노려 통치위기를 수습

하고 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비렬한 책동의 산물이기도 하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보수당국의 파쇼통치와 부패무능, 반인민적악정으로 통치체제가 밀붙리채 뒤흔들리고 집권자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곤두박질하고 있다.

북남관계를 파국의 나락으로 더욱 떠밀고 초보적인 생존권, 인권마저 무참히 유린하고 짓밟는 보수당국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원한과 분노는 하늘에 닿고 있다. 이로부터 남조선보수당국은 모략적인 《종북》소동으로 저들에게 등을 돌려댄 보수세력까지도 재집결하여 통치위기를 모면하고 장기집권야망을 실현해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에서 《종북》소동이 선거를 계기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지난 2012년의 《대통령》선거전야에도 보수집권세력은 《주사파가 (대한민국)을 일으켜 한다.》, 《〈종북세력〉에게 〈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하면서 광란적인 《종북》선동을 일삼았다. 2013년 4월에 있는 《국회》의원선거 이후에는 《〈국회〉에 북의 간첩이 잠입하였다.》, 《〈종북세력〉이 〈국회〉에 발발하게 해서 안된다.》고 떠들며 《종북세력척결》광풍을 몰아왔고 끝내는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하고 그 소속의원들을 《국회》에서 내쫓았다. 오는 4월에도 남조선에서는 《국회》의원보궐선거가 있게 된다. 결국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관련하여 비어진 《국회》의 의석수를 보궐한다는 것인데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보궐선거, 몰아치는 《종북》광풍, 이렇게 놓고볼 때 보수당국의 《종북》소동은 누가 보

아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보수세력 《세규합》소동이 아닐 수 없다. 현시기 《제동기없는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하는 《종북》소동을 그냥 방임해둔다면 북남관계는 불신의 늪에서 언제 가도 벗어날 수 없으며 동족대결은 갈수록 격화될 것이다. 반북적대의식의 산물인 《종북》소동과 함께 벌어지는 위헌천만한 북침핵전쟁연습이 보여주 는 바와 같이 북남대결이 언제 열핵전쟁으로 이어질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또한 6.15지지세력, 통일세력이 점점 위축당하고 힘을 잃게 되며 통일을 추동하는 남녘겨레의 통일운동도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후퇴할 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이 피로써 쟁취한 민주화의 열매는 거의 다 사라지게 되고 력사가 멀리 후퇴하여 《유신》독재와 같은 1인파쇼통치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그속에서 인민들의 생존권, 초보적인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도 더욱 무참히 짓밟히게 되리라는 것은 더 론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 피할수록 빠져드는 《종북》 함정

남조선보수당국이 기획한 것 으면 벌려놓는 《종북》소동에 온 남녘이 공포의 도가니에 휩싸이고 사람들과 정당, 단체들은 저마다 《종북》모자를 쓰지 않기 위해 급급하고 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만들어낸 반민족적인 동족대결풍토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남조선의 제1야당도 《종북속주》로 몰려 골머리를 앓으며 거기에서 벗어나보려고 애써 노력하고 있다. 이른바 《종북세력》과 《계신곳기》니 뉘니 하며 선거에서 련대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문제는 남조선당국이 파놓은 《종북》의 함정이 너무 깊고 넓어서 거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발버둥치수록 더욱 빠져들어간다는 것이다. 자기는 《종북》이 아니라고 피하면 피할수록 《종북》이라는 홍물스러운 무기는 더욱 위력을 발휘하게 되어있고 《종북》소동은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벌어지고 확대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독사에게 날개까지 달아주는 격이다. 오늘은 《종북》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걸리게 되어 있다. 그만큼 《종

북》소동은 집권층의 비위에 거슬리는 민족과 통일을 위한 의로운 모든 일을 다 범죄로 물기때문이다. 《21세기 마녀사냥》인 《종북》론과 《종북》소동에 포로되게 되면 앞으로 북에 갈 수도 없고 자유대로 북녘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동족과 마주앉아 대화도 마음 놓고 할 수 없고 평화통일을 웨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남조선에서 악명높은 《통일》이라는 말만 해도 잡아가우었다. 북과 조금이라도 같은 주장을 하거나 비슷한 소리를 해도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는 지금의 살벌한 남조선정국은 수십년전의 그 때와 비슷하다. 세기는 바뀌었지만 남조선의 정치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대사징벌사건이 보여주 듯이 남조선보수당국은 격노한 민심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종북》소동에 매달릴수록 반통일대결적인 정체만을 더욱 드러내 민심의 배척을 받으며 그로 하여 수치스러운 과멸밖에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사기자 최 광 혁



지난 3월 10일 남조선의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정중욱이 그 무슨 강연회라는 곳에 나타나 《〈체제, 흡수통일〉은 하기 싫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느니, 《〈정부〉안의 다른 조직에서도 〈체제통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느니, 《〈통일준비위원회〉는 평화통일을 전제로 한 조직이지만 밖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느니 하고 발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조선의 집권세력은 《언론에서 잘못 보도》하였다느니, 《더 이상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느니, 《〈통준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지켜보라.》느니 하며 복잡하게 번지고 있는 사태를 수습해 보려고 모지름을 쓰고 있다. 지어 《새누리당》의 한 최고위원은 《〈통일준비위원회〉의 한 사람이 잘못된 표현을 사용했다.》, 《이것을 트집잡아 새로운 장애물을 만들려고 하는 북쪽의 태도를 리해할 수 없다.》고 오히려 북을 겹고들기까지 하였다. 그야말로 눈감고 아옹하는 격이다. 속담에 아니 뎨 굴목에서 연기날수 없다고 안한 말을 언

론이 지어내서 공개한 것도 아니요, 단순히 표현을 잘못해서 뜻이 다르게 전달된 것도 아니다. 그의 발언은 명백히 《통일준비위원회》가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관변도구라는 것을 은연중 실로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이 어떤 통일인가 하는 것은 이미 지난 2년간의 행적을 통해서도 남김없이 립증되었다. 지난해 3월 도이칠란트에 찾아가간 남조선당국자는 이전 동부도이칠란드지역도 돌아보면서 《자유에 대한 갈망이 통일의 원동력이었다.》느니 하면서 《체제통일》의 기도를 드러내고 그 무슨 《드레즈덴 선언》이라는 것도 발표하였었다. 그것은 흡사 이전 집권자

인 리명박이 베를린장벽을 돌아보며 《북의 정권과 국민을 갈라보아야 한다.》느니, 《통일은 한밤중에 도적고양이처럼 올 수 있다.》고 뇌까렸던 것을 방불케 하였다. 남조선당국이 북남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고 무력충돌위험까지 몰아오는 범죄적인 반공화국베라살포놀음을 《표

리를 해도 《종북》의 모자를 씌우고 통일진보세력을 닦치는 대로 탄압하는 폭압광기야말로 동족에 대한 끝없는 적개심의 표현이며 민족적화해와 단합, 협력이 아니라 《변화》와 《제도전복》의 방법으로 불순한 통일을 이루어보려는 술책의 산물이다. 민족분렬 70년이 되는 이해

은 더 말할 여지도 없다.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는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과 온 겨레의 강렬한 통일열망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가 갈수록 더욱 악화되기에만 하고 전쟁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가 《붕괴》론을 공개적으로 떠드는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이처럼 《체제통일》을 한사코 추진해오기때문이다. 《체제통일》의 길은 곧 무력충돌과 전쟁의 길이다. 공화국은 이미 대화와 전쟁에도 다같이 준비되어있다는 것을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다. 남조선당국이 백년천년이 가도 이루지 못할 허황한 《흡수통일》망상에 사로잡혀 북남관계를 계속 대결과 충돌의 길로 몰아간다면 그로 인해 가장 비참한 과멸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김 명 성

# 《흡수통일》을 준비해온 2년

원인 《〈통일준비위원회〉의 한 사람이 잘못된 표현을 사용했다.》, 《이것을 트집잡아 새로운 장애물을 만들려고 하는 북쪽의 태도를 리해할 수 없다.》고 오히려 북을 겹고들기까지 하였다. 그야말로 눈감고 아옹하는 격이다. 속담에 아니 뎨 굴목에서 연기날수 없다고 안한 말을 언

적을 통해서도 남김없이 립증되었다. 지난해 3월 도이칠란트에 찾아가간 남조선당국자는 이전 동부도이칠란드지역도 돌아보면서 《자유에 대한 갈망이 통일의 원동력이었다.》느니 하면서 《체제통일》의 기도를 드러내고 그 무슨 《드레즈덴 선언》이라는 것도 발표하였었다. 그것은 흡사 이전 집권자

현의 자유》니 뉘니 하며 지금껏 극구 비호목인조장해온 것은 동족과 대결하고 동족의 사상과 제도를 뒤집어엮으려는 불순한 야망때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종북》소동 역시 마찬가지로

에 북남관계를 어떻게 하나 획기적으로 개선해보려고 공화국이 외세와의 합동전쟁연습을 그만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전쟁연습을 끝날내 강행하여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북침화약내로 뒤덮어놓은 것도 무력으로 북을 치고 《제도통일》의 야망을 이루어보려는 상전과 주구의 합작품이라는 것

본사기자 김 명 성

# 평양을 《점령》하러 다가는...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북침전쟁광기가 극도에 이르고있다. 《독수리》연습의 일환으로 오는 3월말에는 《평양점령》을 노린 대규모 연합상륙작전연습이 벌어지게 된다고 한다. 내외가 반대배격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명백히 《북점령》을 노린 위협천만한 선제공격연습, 핵시험전쟁임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내외호전세력들이 불장난동을 피우며 노리는 그 무슨 《점령》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점령하기는커녕 불을 즐기는 자 불에 타죽는다고 저들이 개죽음당하고 점령당할 수 있다. 공화국은 평화를 귀중히 여기지만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이다. 미국이 전쟁의 불을 지르면 그것이 재래식전쟁이든, 핵전쟁이든 해볼래면 해보자는 것이 공화국의 자

신만만한 배심이며 최후 결전의지이다. 적대세력들에 의해 전쟁의 도화선에 우리 민족이 원하지 않는 불이 당긴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군이 주둔한 서울을 비롯하여 온 남녘이 불도 가니에 잠길 수 있다. 남조선의 군사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이미전부터 북의 전연에 배치된 장사정포들이 전쟁개시와 함께 일제히 불을 도하게 되면 지척의 《서울은 시간당 50만발의 포탄세례를 받아 순식간에 불바다》가 될 것이며 수많은 실험방사포들과 각종 미사일, 항공기, 잠수함에 의한 타격으로 안전한 곳이라고 하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북이 투수전투력만 가지고서도 남조선을 순식간에 타고앉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원자력발전소들이 밀집된 남

조선은 죽음의 핵방사능 지대로 화하게 될 것이며 과연 그런 곳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거나 하겠는지... 전쟁은 자비를 모른다. 일단 침략자들에게 의해 전쟁이 강요된다면 워싱턴을 불바다에 잠기고 침략의 기지들이 있는 모든 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공화국의 경고를 결코 무시해대하지 말아야 한다. 공화국은 한다면 하는 나라이다. 공화국의 군대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관철하기 위함이라면 모두가 적화적이든, 군사기지가든, 항공모함이든 뛰어들어 단매에 요정내는 육탄용사가 될 열의에 차넘쳐있는 사상과 도덕의 강군이든 핵무기까지 손에 쥔 제일강군이다. 이런 군대와 싸움을 해서 《평양을 점령》해보겠다는 것은 우둔한 짓이고 닭알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미국이 도발한 지난 조선전쟁에서 침략자들은 수치스러운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었다. 미국에 의해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모조리 죽탕쳐버리라는 백두의 우뢰소리는 이 땅에 최후승리의 축포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남조선은 침략적인 미국을 하내비처럼 섬기면서 전쟁동맹인 《한미동맹》에 명줄을 걸고있지만 선군조선의 드센 불벼락에 망하게 될 대양진너의 그 미국도 결코 남조선을 지켜주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서는 아무리 후회하고 한탄해도 필요없게 될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공존과 협력으로 통일과 공동번영으로 가는가, 적대와 대결로 전쟁과 자멸로 가는가. 그 선택을 남조선당국은 심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서 희

## 새 전권부대에 우한 애머

얼마전 미해병대 전투발전사령관 글루크가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조선반도우사시 미해병대우력의 투입에 대하여 증언하였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1차로 일본 제31원정해병부대를 투입하는데 이어 오스트랄리아의 북부 다윈에 있는 미해병대병력도 수송기를 통해 추가투입한다는 작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오스트랄리아 주둔 미군병력을 앞으로 계속 늘어나간다는 것이다. 조선반도우사시 오스트랄리아에 주둔한 미 해병대가 투입되는 시간은 48시간이라고 한다. 미국이 지금까지 조선 반도우사시 일본과 미국 본토 그리고 태평양상의 섬들에 주둔한 미군부력을 전개한다고 한것은 잘 알려져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뭐니 하는 구실 밑에 남조선에서 해마다 벌리는 《키 리졸브》, 《독수리》, 《울지 프리덤 가디언》 등 각종 명칭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에 조선반도와 그 주변을 둘러싼 지역들과 미국본토에서 침략부력을 끌어다놓는다. 이렇게 놓고볼 때 미국이 이번에 조선반도우사시 오스트랄리아주둔 미군부력을 투입할데 대하여 공언한것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아닐수 없다. 알려진것처럼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벌리는 대규모북침합동군사연습이 계단식으로 확대되며 금 내외호전세력들은 공화국의 《핵과 미사일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면서 전례없는 전쟁광기를 부리고있다. 하늘에서는 미군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의 공중전투기들이 쉬파리며 처럼 날아다니고 해상에서는 미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라센》호, 《존 에 맥케인》호, 연안전투함 《포트워스》호, 구조함 등形形色색의 함선들이 짙은 화약내를 풍기며 북침전쟁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연합하여 곧 《평양점령》을 목표로 하는 《쌍룡》상륙작전훈련을 감행하려 하고 있다. 내외호전세력들의 무모한 북침전쟁연습행동으로 위협계선을 넘어서고있는 조선반도정세는 세계사회의 커다란 우려와 불안을 자아내고있다. 이런 속에 미국에서 울려나오는 조선반도우사시 오스트랄리아주둔 미해병대의 투입은 제2의 조선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따른 사전의 군사적대책으로 봐야 할 수 없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국은 저들의 추종국가들

을 《유엔군》의 감투를 씌워 조선전쟁에 끌어들이었다. 앞으로 벌리게 될 제2의 조선전쟁에서도 미국은 이와 같은 수법을 리용하려 하고있다. 지금 대규모적으로 강행하고있는 남조선미군합동군사연습에 미국이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나라 군대들을 참가시키고있는것은 조선반도우사시를 가상하여 미리부터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는것이 군사평론가들의 주장이다. 미국이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각종 군사작전계획들을 세워놓고 대규모북침전쟁연습을 통해 해마다 그것을 수정보충 완성하는것과 함께 저들의 추종국가들을 여기에 끌어들이는것은 제2의 조선전쟁이 말로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박두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지난 조선전쟁에서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공화국은 수백차례의 전쟁에서 단 한차례의 패전도 볼랐다고 거들먹거리며 수많은 추종국가 고용병들까지 끌고온 미국의 거만한 코대를 꺾고 서산락일의 수치스러운 운명을 안겨주었다. 미국이 그때의 교훈을 망각하고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한다면 지난 조선전쟁때보다 비할바없이 장성강화된 공화국은 이 미 선포한대로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자도 없게 짓뭇개고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게 될 것이다. 리 어 글



단 한치의 땅이라도 건드린다면 자위적무장력은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

## 재미동포들이 미국대통령 오바마에게 조미평화협정체결을 촉구하는 공개편지 광고게재

최근 재미동포들이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에 《조미평화협정을 바라는 재미동포들》의 명의로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할것을 요구하는 공개편지를 전편광고로 게재하였다. 편지에서는 재미동포들이 미국대통령선거때 오바마를 지지하게 된 주요동기의 하나가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북조선과 대화와 협상을 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혔던 선거공약때문이었지만 대통령이후 취임후 오바마가 내세운 《전략적인내》라는 대조선정책을 보고 실망하게 되었다고 비난하였다. 오바마의 이러한 대조선정책에 따라 북조선에 대한 제재와 금수조치들이 더욱 강화되었고 북조선의 바로 문턱에서 핵폭격기들의 비행을 포함한 위험한 군사연습들이 수시로 진행되었으며 북조선과의 거의 모든 공식적, 비공식적 접촉통로들이 단절되고 북조선인민들에 대한 식량을 포함한 인도주의적지원도 중단되게 되었다고 하였다. 편지는 오바마의 위험한 대조선강경정책이 남조선의 리명박, 박근혜보수 《정권》의 등장과 매를 같이하여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더욱 고조시켰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상상할수 없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달하는 오랜 적대관계를 끝내고 평화협정체결과 관계정상화를 이루면 공화국으로 하여금 군사비지출을 줄이고 경제발전에 주력하게 할것이라고 하면서 오바마가 이를 위해 노력해줄것을 촉구하였다. 북조선이 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에서 해방되는것이 경제를 회복하고 국방비지출로부터 인건적요구충당으로 재원을 돌려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잘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미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유럽나라들이 겪은 운명과는 크게 대조되게 자기의 민족자결권을 지키고있으며 그들의 자기식 사회주의 정치 및 경제체제는 70년이 지나도록 꺾어지지 않고 유지되고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고립, 제재, 금수조치와 군사적압력은 북조선의 정권교체를 달성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하면서 북조선의 이러한 성과는 단지 군사력에 의해서만 달성된것이 아니라 식량부족을 포함한 계속되는 경제적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외부에 의하여 강요된 고립으로 인한 사회의 엄혹한 현실들을 타개해나가려는 인민들의 의지와 결심에 의한것이라고 하였다. 북조선은 유엔성원국으로서 165개 나라들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가지고있으며 지난 시기 많은 나라들과 결실한 국제적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합법적인 주권국가라고 밝혔다. 편지는 북조선사회를 단결시키는 《주체사상》에 대하여 외부의 관측자들이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이라고 잘못 리해하거나 오판하고있지만 주체사상은 지난 70년간 미국의 적대시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가 생존할수 있게 하는 리유를 설명해주고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의 《전략적인내》정책은 북조선의 핵무기의 소형화와 운반기술의 발전과 같은 강력한 방위자세를 각인시켜주었을뿐이고 우발적인 충돌을 야기시켜 조선반도뿐 아니라 그 주변의 일본, 오키나와, 괌도 지역 미국본토까지도 포함하는 끔찍한 참사를 초래할수 있게 한다는것을 잘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편지는 인민이나 군사문제를 놓고 최근에 벌어지는 미국의 압력은 북조선인민들로서 하여금 자기들의 민족적자존심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바마가 미국과 남조선이 벌리고있는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오바마가 미국과 북조선사이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것은 너무도 응당한 일이라고 하면서 두 나라사이의 70년간의 적대관계를 끝내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경제적발전 그리고 나아가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통일을 이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본사기자



## 자주권을 지키려는 베네수엘라의 조치

얼마전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대통령궁전을 비롯한 주요대상들을 폭격할 음모까지 꾸미었다는 사실도 폭로되었다. 합법적인 베네수엘라정부를 뒤집어엎으려는 미국의 음모가 드러나자 세계는 경악했다. 이로부터 미국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들고 나아가는 베네수엘라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하나 이 나라를 전복하려고 음모양모로 책동하였다. 미국은 지난 해 2월 일부 불순세력들을 매수, 규합하고 사촉하여 반정부시위로 내몰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니, 《민주주의수호》니 하며 적극 비호두둔하였다. 수개월간 지속된 반정부시위로 베네수엘라사태는 엄중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베네수엘라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하자 미국은 이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공세를 벌리는 한편 베네수엘라 정부 고위인물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비자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비열한 체제소동을 벌리었다. 이에 대처하여 베네수엘라대통령 마두로는 미국관광객의 비자발급을 의무화하고 미국의외교관이 야당 등 반정부파인사를 만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어 부쉬 전 미국대통령과 체이니 전 부대통령을 포함한 보수경향의 미국정치인들을 《레오본자》로 지목하고 입국을 금지시켰다. 한편 지난 2일 베네수엘라정

부는 자국에 주재하는 100여명의 미국외교관중 17명만 남고 80%에 달하는 나머지 인원들은 보름안에 모두 떠나라고 요구하였다. 이렇게 되자 미국은 이번엔 로폭적인 방법으로 베네수엘라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책동에 매달린것이다. 베네수엘라대통령 마두로는 어느 한 TV방송에 출연하여 오바마가 베네수엘라군부장교들을 매수하여 나라에 불안정을 조성하려 한데 대해 단죄규탄하였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주재 미국대사관 참사관사자에 의해 세밀히 작성된 정변음모가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보호사슬》이라는 문건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하먼 그는 최근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한 연설에서 《국가수장으로 우리의 헌법과 베네수엘라국민의 혁명정신에 걸맞게 한 일》이라고 정부의 결정을 정당화하면서 미국인조종사 등을 간첩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는 반정부시위는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팔름비아의 준군사조직이 개입하고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베네수엘라를 전복시키려고 획책하는 배후자》로 단죄하였다. 정세전문가들은 합법적인 주권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는 미국의 강권과 내정간섭책동을 단호히 반대하는 베네수엘라정부의 단호한 조치로 미국이 앞으로 상당히 골머리를 앓을것으로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웅 철

# 스빠게띠 - 누구나 맛보고있는 음식

## - 광복거리 이딸리아 요리 전문식당 -

얼마전 기자는 광복거리에 위치하고있는 이딸리아 요리 전문식당을 찾았다. 개업한지 7년째 되는 이딸리아 요리 전문식당으로는 특이한 이딸리아 요리를 맛보러 각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기자는 이곳 식당의 리봉녀 봉사부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요즘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하여 곳곳마다에 훌륭한 문화정서생활기자들이 일떠서는것과 함께 우리 인민들의 음식문화도 빨리 발전하고있다.

리봉녀: 우리 나라 속담에 《금강산경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다. 사회주의문명국을 지향해 나가는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의 음식문화도 날로 발전해가고있다. 여기서 기원은 조선민족의 고유한 음식문화를 발전시키고 계승해나가는것이다. 얼마전에 뜻깊게 보낸 설명절과 정월대보름날에도 각각의 식당들에서 떡국, 랭면, 송편, 록두지짐, 김치를 비롯한 우리 민족 음식을 다양하고 특색있게 봉사하여 찾아오는 많은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기자: 사람들속에서 조선민족음식뿐 아니라 뼈짜리와 스파게띠 등 이딸리아 요리들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요리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있지 않는가?

리봉녀: 그렇다. 민족성을 내세운다는것은 다른 나라의것을 무시하거나 깔본다는 의미가 아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 땅에 발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이딸리아 요리 전문식당도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2008년에 개업하였다. 그때 우리 요리사들이 직접 이딸리아에서 가서 3개월동안 배우고 와서 요리를 하고있다.

급한 젓단백질로서 인체의 활력을 높여주고 특히 녀성들의 피부를 맑고 부드럽게 해주는것으로 하여 식생활에 널리 이용되고있다.

스빠게띠 역시 현대영양학이 요구하는 음식물



의 3대요소의 조성비(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가 조화롭게 들어있는 음식이다. 사람들의 건강에 리로운 높은 영양학가치로 하여 뼈짜리와 스파게띠는 오늘 본고장인 이딸리아위를 벗어나 많은 나라들에서 인기있는 음식의 하나로 되고있다.

우리 식당에서는 전통적인 뼈짜와 함께 속갓뼈, 김치뼈 등 우리 민족의 구미에 맞게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맛의 뼈짜들도 개발하여 손님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기자: 대체로 어떤 손님들이 찾아오는가?

리봉녀: 식당을 개업한지 7년째인데 날이 갈수록 많은 손님들이 찾아온다. 처음에는 이딸리아 요리 전문식당이 우리 식당뿐이었는데 후에 평천구역에도 해운이딸리아 특산물식당이 생겼다. 지금 큰 크고작은 식당들은 물론 거리에서 간이음식매대에서도 스파게띠와 뼈짜를 봉사하는것

이 혼란 현상으로 되고있다. 옥류관로리 전문식당에서도 뼈짜나 스파게띠를 비롯한 다른 나라 요리들과 타조로리, 뽕장어로리, 자라, 철갑상어, 메추리로리를 비롯한 각종 요리들을 봉사하고있다.

신문과 잡지를 비롯한 여러 출판물들에도 뼈짜만드는 상세한 방법이 자주 소개되어 적지 않은 가정들에서는 자체로 만들어 먹기도 한다.

하지만 역시 전문식당인 우리 식당의 인기는 여전히이다. 이곳에서는 이딸리아에서 직접 배우고 온 요리사들이 손님들앞에서 스파게띠를 만드는 이채로운 모습도 볼수 있고 그 맛도 어느 식당들에 비해 좋다. 식당을 찾는 손님들도 맛을뿐 아니라 전화 주문도 많이 들어온다.

기자: 얼마전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 북에서는 뼈짜나 스파게띠를 《부유층》들만이 먹는다는 글이 실렸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리봉녀: 정말 어이가 없는 말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식한 발언이고 북이라면 덮어놓고 나쁘게만 묘사하려는 대결적인 습성의 발로라고 본다. 우리 사회에 무슨 특권층, 부유계층이 따로 있는가. 이미 우리 나라에서 뼈짜, 스파게띠와 같은 서양음식은 먹고싶은 사람은 누구나 맛볼수 있는 일상음식으로 되고있다. 값도 별로 비싸지도 않다. 그리고 우리 인민들의 음식문화수준이 날이 높아지고있다는것을 남쪽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 봄계절과 녀성들의 꽃정서

녀성들은 꽃이 피는 봄을 특별히 좋아한다. 봄별은 남성들보다 특히 녀성들의 마음을 더욱 들뜨고 설레이게 한다고 한다.

원인은 사람의 뇌에 있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호르몬과 관련된다.

이 호르몬은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불안감을 덜어주는 작용을 하는데 해비침량이 늘어남에 따라 그 분비량도 같이 늘어난다. 봄철에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들뜨게 되는것도 바로 이때문에 특히 녀성들의 세로토닌분비량이 더 많아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봄별은 녀성들의 대뇌기능도 활성화시킨다. 한 심리학실험에서 겨울부터 봄까지 사람의 대

뇌에서 시각 및 청각정보 처리부위의 신경세포들이 얼마나 빠르게 활성화되는가를 관찰하였는데 남성들은 이 기간에 대뇌기능에서 차이가 별로 없는 반면에 녀성들은 겨울보다 봄에 대뇌기능이 훨씬 더 활성화되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빙점보다 한두가지 단조로운 색상만 있었던 겨울에 비해 자연환경의 다채로운 색상이 펼쳐진 봄에 녀성들이 심리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녀성들이 아름다운 색깔의 꽃들을 보면 흥분하는것도 이와 관련된다. 사랑의 고백이나 그 징표로 연인에게 꽃을 주는 사람은 대부분 남성들이다. 마찬가지로 생일이나 결혼

선물하는 사람도 대부분 남성들이다.

어느 한 연구소에서 남성들과 녀성들이 서로 꽃과 열골표정을 분석하여 측정하는데 의하면 꽃을 받은 남성들에 비해 훨씬 더 기뻐하였다고 한다.

원시시기에 남성들은 짐승사냥, 녀성들은 산나물등의 채취로 매식을 마련하였는데 녀성들에게 있어서 꽃은 가까이 매식원천인 열매가 있다는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로 되었다. 그때로부터 녀성들은 꽃에 민감하고 그것을 보면 더욱 기뻐하게 되었다고 한다.

본사기자

다투어 찾아온다.

## 고려약재로 낚시미끼를

《이위》라는 약재 30g을 가루낸다. 거기에 50g의 지렁이를 넣고 한테 버무리면 된다.

너무 물기가 없으면 찬

물을 몇숟가락 퍼넣어도 좋다. 이것을 만나질 놓아 두었다가 사용할수 있다.

그러면 지렁이의 냄새를 맡고 물고기들이 앞을

《아위》가루 30g에 밀가루 100g을 넣고 고루 섞어 굳은 반죽을 한다. 이것을 콩알만큼씩 알을 만들어 낚시에 깨어 물속에 던져넣는다.

본사기자

## 사설 때 (2)

글 박민한, 그림 김윤일

《세상만물은 《음양 5행》의 조화로 이루어졌은즉 구름간에 번개불이 일구 꿨는 물엔 눈이 녹기 마련이지요. 그러니 남녀의 상합도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다오. 부모님 철이래도 그 일만은 장담할수 없지요.》하며 손을 들어 저었다.

외숙은 눈길을 떨군채 입맛을 다셨다. 《그참... 그럴진대 그 속내를 어찌 알아내리까?》 《다 방법이 있지요...》하며 상군은 감별방법에 대하여 장황히 이야기하였다. 그것은 비과학적인 방법이었는데 궁중의 의녀가 대상의 팔목에 피코리의 생피를 발라 보고 피가 묻으면 순처녀이고 피가 묻지 않은채 걸 되면 순처녀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런 미신적인 감별은 조선봉건왕조의 말년까지 답습되어 수많은 처녀들의 순진한 가슴에 아픈맛을 박았던 것이다.

《순처녀》와 련계된 상군의 말마디들은 설매

의 놀라움과 반발을 절정에 이끌었다. 녀자나이 열네살이면 이성을 리해하고 감수하기엔 충분한 나이이다.

설매는 동무들과 봄꽃속에 노닐며 옛날옛적 청산으로 가던 범나비가 꽃의 푸대접을 받고 있어서 자고간 이야기를 즐겨하였다.

이야기속의 《범나비》는 벌써 설매의 마음속에 저도 몰래 고토끼 울튼 이상의 정겨운 호칭이기도 하였다.

《꽃이 《범나비》를 맞아 재울 《신방》도 꾸러 놓지 않은게지. 호호...》 처녀의 수줍음에 먼저 찾지는 못해도 남몰래 반겨오는 《범나비》라면 푸대접은 하고싶지 않은 설매였다.

함께 가고픈 희망의 설매임도 없지 않았다.

(어찌하면 좋을까?! 아!) 사람이 지켜야 할 큰 의리는 《충, 효, 열》이라 하였는데 충, 효가 《열(녀자의 절개)》을 대신할수 없고 《열》이 또 한 충, 효와는 다른것이리라.

백성된 도리로 궁궐안에서 임금님을 《충》으로는 받들지언정 《열녀》의 자아비로는 모실수 없는것이였다.

설매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채 와뜰 놀래며 고개를 쳐들었다.

(이렇게 한탄만 하고있을 때가 아니다! 아! 누가 불우한 나를 도와준단 말인가?!) 하며 축급히 일어나 문밖으로 나섰다.

이어 삼작문을 굽히 지나

어태라없이 마구 달렸다. 수림을 헤쳐 달리고 고개길도 숨가빠 넘어 발길이 닿는 곳은 부모님의 묘소였다. 하여 살아생전의 부모님품에 안기듯 봉분의 잔디우에 어푸러진채 서럽게 울었다. 녀이라

있다면 애무속에 신의 계시로 방책을 알려주련만 깊이깊이 잠든 부모님의 혼백은 깨여날줄 몰랐다.

순간 어데신가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다. 《땡, 땡...》

고개너머 령통사에서 저저체를 울리는 범종소리였다. 이 소리에 설매는 굽기야 고개를 쳐들었다. 사위는 언제 벌써 땅저미가 내렸다.



성급히 일어난 설매는 외숙을 따라서 자주 다녀 보던 절을 향해 달리고 달려갔다. 절의 방문들에는 등불이 새겼고 안에선 재를 울리는 종들의 넘불소리, 목탁소리가 들려왔다. 설매는 낮익은 구석적인 외진 방으로 달려들어 자기방이 부처의 지경에

닿았다는 관음보살상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손을 합장한채 아미타불의 명호와 관음보살을 수없이 불러보며 속깊은 고뇌를 터놓고 소원을 빌었다.

《...에달픈 심사의 진말은 이러하오니 대자대비하신 보살님이시여, 피플새의 생피가 저의 팔목에 묻지 않고 걸들도 보살펴주소서. 비록 순처녀가 아니라는 오명은 들을

룩감으로 느릿이 돌아보았으나 방문은 닫겨진채 별일이 없었다.

하여 문밖으로 조용히 나와 열방을 지나러는데 방문안에서 새는 말소리가 크게 들려 무심중 문가에 멈춰섰다.

《...나는 고려국의 충신으로 한생을 바칠 결심이야.》

《나 역시... 어찌 두 임금을 섬겨 역신의 패호를 후세에 남기리오.》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러니 여기 고퍼한 주지님의 문하에서 삼년공부도 마쳤으니 장차 나라가 어려울 때 한목숨 바치는 충신이 되자구. 충신의 절개는 란시를 당하여 안다 했으니...》

이야기소리로 미루어보면 청운의 뜻을 키우려 주지승의 문하생으로 절안에서 침식하며 글공부에 열중하는 두 젊은이가 분명하였다. 설매는 알고지내는 중녀의 일손을 도우며 며칠이건 절에 퍼신하고싶었다. 하여 그날밤엔 달빛이 교교히 흐르는 절안의 호젓하고 정갈한 외진 후원숙엘 홀로 거닐며 초조하고 각박한 심정을 달래

복숭아, 살구, 앵두꽃들의 향기가 진한 속에 춘흥을 달궜길이 없어 벌들도 대낮이런듯 꽃과 노닐고있었다.

그리고 후원옆에 있는 여러 돌담들의 층층 네귀들에 매단 풍경들이 솔솔한 바람때 따라 달랑대는 청아한 소리, 수림속 멀리에서 밤새의 목진한 울음소리는 진정 신선사는 곳인듯 하였다.

이때였다. 설매는 인기척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저만치의 복숭아나무아래에 웬 젊은이가 선채 류다르게 인상적인 밝은 웃음을 흘리며 나직이 말을 건넸다. 《놀래지말어.》

달빛속의 숲진 꽃이라도 어찌지 예감은 젊은이의 후더운 인정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하여 설매는 대방의 말에 수궁하듯 느릿이 머리를 끄덕여보았다. 이어 젊은이는 누가 들을세라 주변을 잠시 살피며 조용조용 말을 건넸다. 《애달픈 심정은 다 들었어.》 이 소리에 설매는 못내 당황해하며 속삭이듯 말을 건넸다. 《그럼 내가 보살님앞에 비는 소리를...》